

두 자기평가 편향과 자존감간의 관계*

고재홍[†] · 전병우

경남대학교 사회과학부

본 연구에서는 자기고양 편향을 자신을 타인에 비해 높게 평가하는 편향(사회비교 편향)과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편향(자애적 편향)으로 구분하여 두 자기고양 편향 지표가 자존감과 어떤 관계인지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고교생 4명을 한 집단으로 구성한 총 50집단(200명)이었다. 측정도구는 자존감 측정 설문지, 성격의 5요인에 근거한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이었다. 피험자들은 같은 학급의 학우들로서 무작위로 구성된 4명을 한 집단으로 하여 연구에 참여하였고 이들은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자신과 타인들을 서로 돌아가며 평가하였다. 개인의 실제 평가치는 그에 대한 다른 집단성원들의 평균 평가치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성격평가에서 자기고양 편향보다는 자기겸양 편향을 보여주었다. 둘째, 평가영역별 비교에서는 정서안정성, 성실성, 교양성 등에서 자기겸양 편향이 나타난 반면, 외향성에서는 약간의 자기고양 편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두 종류의 자기고양 편향과 실제평가 중 어느 것이 자존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결과, 실제평가와 자기고양 편향 모두 어느 정도 자존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가지 편향 중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편향은 자존감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실제평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고양 편향이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요어 : 자기고양 편향, 자존감, 자기지각, 타인지각

자기지각은 오래 전부터 최근까지 사회심리학의 주요 연구대상이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 혹은 자신과 관련된 여러 대상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의 여부와 이것이 사회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야이다(Alicke, 1985). 자기지각의 효과를 알아 본 초기 연구들은 주로 자기지각과 전반적인 자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예 : Butler & Haigh, 1954). 이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평가와 전반적인 자존감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평가는 전반적 자존감과 가장 관련이 높은 변인이었으며, 전반적인 자존감의 변량의 반 정도를 설명할 수 있었다

(Rosenberg, 1979 참조).

또 다른 한 접근에서는 이상적 자기 개념(ideal-self)과 실제의 자기 개념(actual-self)간의 일치 정도와 전반적인 자존감간의 관계를 다루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두 개념간의 불일치가 적을수록 자존감이 높고, 불일치가 클수록 자존감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Altrochhi, Parsons, & Dickoff, 1960; Guerny & Burton, 1967; Kubiniec, 1970).

그러나 자기지각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결과는 자기지각에서 많은 왜곡이 있다

* 본 연구는 2003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많은 조언을 주신 심사위원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 교신저자 : 고재홍(631-701 경남 마산시 월영동 경남대 사회과학부, kopsy@kyungnam.ac.kr)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이나 이 세상을 본다(Levashina, 1998). 실제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각이 정신건강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이전의 생각들(예: Johada, 1958)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오히려 자신과 관련된 현실을 잘못 지각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Colvin & Block, 1994 참조). 예를 들어 자신을 남들보다 높게 지각하는 자기고양 편향이 없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고 약간의 우울증세를 보여 주었다(박미영, 1997; Alloy & Ahrens, 1987).

Taylor와 Brown(1988)은 이런 방향으로 지각하는 것이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지각자에게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 이를 “긍정적 착각(positive illusion)”이라 명명하였다. 이들은 자기지각을 다룬 많은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비교적 편향없이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을 잘 적응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신을 타인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것은 때로 비현실적이지만 긍정적 자아를 채택하여 자존감을 높여 그들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고 하였다. 또한 성취 영역에서 자신이 능력이 높다고 지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고양된 자기평가가 인지적 오류일지는 모르지만, 그 개인에게는 유익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자기지각(혹은 편향)과 정신건강간의 관계를 다룬 여러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신건강의 지표 중 하나가 자존감(self-esteem)이다. 이는 자기견해(self-view), 자기개념, 자기평가(self-evaluation), 자아상(self-image), 자아정체성(self-identity), 자기가치감(self-worth), 및 자기(self) 등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Rosenberg(1979)는 자존감을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하여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불안이 크며,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자신감과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상은 높으나 실패가 두려워 시도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표현력, 자기 확신, 인내, 잠재적인 리더

십, 지능과 숙련도, 좋은 인상을 주는 능력, 사교술, 및 실용적 지식 면에서 우수한 특징을 보여 주었다.

또한 Coopersmith(1967)는 자존감을 개인이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자기평가로 보고, 자기평가는 개인이 그 자신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그의 행동, 능력 그리고 속성을 평정하는 것으로 그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과정으로 보았다. Rosenberg(1979)는 특히 긍정적 자기평가는 청소년기의 적응을 돕는 반면, 부정적인 자기평가는 과도기적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평가가 중요한 적응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자기평가와 자존감간에는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기평가의 결과가 자존감이라는 입장(예: Altrochhi, et al., 1960)보다는 자존감 보호동기로 인해 자기평가의 왜곡(편향)이 초래된다고 보는 입장(예: Taylor & Brown, 1988)이 우세하다.

자존심 보호 동기와 사회지각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거나 증진시키려는 동기가 있고, 이 동기가 여러 지각과정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매우 보편적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현상을 자기고양 편향(self-serving bias 혹은 self-enhancement bias)이라 부른다(예: Taylor & Brown, 1988). 자존감 보호 혹은 자존감 고양동기는 사람들의 지각 과정(Erdelyi, 1974), 기억 과정(Greenwald & Pratkanis, 1984), 그리고 귀인 과정(예: Miller & Ross, 1975) 등 다양한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 인 성격 정보를 부정적 성격 정보보다 더 쉽게 회상하고, 또 그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며(예: Kuiper, Olinger, MacDonald, & Shaw, 1985), 자신이 수행한 일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Crary, 1966).

이처럼 자존심 보호 동기가 여러 측면의 사회지각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첫째, 성취장면에서 사람들의 귀인방식에 관한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경우, 그것의 원인을 자신이 내부로, 부정적인 결과인 경우는 그것의 원인을 자신의 외부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Bradley, 1978; Miller & Ross, 1975; Ross & Fletcher, 1985). 다시 말해 성공은

내부귀인하고 실패는 외부귀인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신과 타인을 평가할 때, 자신을 타인이나 친구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평균보다는 더 낮다(better-than-average)고 보는 경향으로서, 특히 서구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이다(Heine & Lehman, 1997). 이런 경향성은 능력의 평가(Campbell, 1986)나 성격 특질의 평가(Alicke, 1985; Dunning, Meyerowitz, & Holzberg, 1989)에서 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 교수들 중 94%가 자신이 평균적인 교수들보다 실력이 있다고 평가하고(Cross, 1977), 직장인들 중에서는 단지 1%가 자신의 수행 능력이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Headey & Wearing, 1987). 일반인들도 긍정적인 성격 특질이 부정적 성격 특질보다 자신을 더 잘 기술한다고 생각하고(Alicke, 1985; Brown, 1986), 자신이 잘 할 수 없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Harackiewicz, Sansone, & Manderlink, 1985; Lewicki, 1984; Rosenberg, 1979). 뿐만 아니라 행동(Allison, Messick, & Goethals, 1989; Messick, Bloom, Boldizar, & Samuelson, 1985), 건강(Larwood, 1978; Weinstein, 1980), 및 사회 규범의 준수 가능성(Codol, 1975)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자기고양 편향이 나타난다. 실제로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확률이 자신이 거짓말을 할 확률보다 3배 정도 높다고 생각하였다(Rosenblatt, 1993).

셋째, 사람들은 자기평가에서 자신을 “실제”보다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런 경향성도 일종의 자기고양 편향으로 보고있다. 예를 들어 Taylor와 Brown(1988)은 자기고양 편향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남들이 보는 것보다 더 낮게 보는 것(p. 195-196)”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남들이 보는 것을 “실제”로 간주한다면, 자신을 실제보다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자기고양이다. John과 Robin(1994)에 따르면, 동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미국인들이 약 30%인 반면, 그 반대인 경우는 약 15%정도이었다.

넷째, 사람들은 자신을 과거에 비해 현재가 더 향상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예 : 박혜경, 2002). 실제로 사람들은 현 시점에서 자신의 과거모습을 기억할 때 과

거보다는 현재의 자신이 더 낫다고 지각한다(Crary, 1966). 특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능력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과거에 비해 그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Conway & Ross, 1984). 사회적 평가의 대부분이 상대적 평가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Festinger, 1954)에, 혹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과거보다 더 향상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향상지각은 편향일 가능성이 크다.

자기평가에서 나타나는 고양편향의 두 지표

자기평가에서 나타나는 자기고양 편향을 다루고 있는 선행 연구들에서는 편향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자기고양 편향을 어떤 속성에 대해 평가자가 자신을 평가한 값(자기평가)과 타인들을 평가한 값(타인평가)을 비교하여, 자기평가 값이 타인평가 값보다 큰 경우를 자기고양 편향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자신을 남들보다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자기고양 편향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주로 Festinger(1954)의 사회 비교(social comparison)에 근거한 정의로서 사회심리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의이다(이 경우를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편향’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Kenny(1994)는 자기고양 편향을 “사람들이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p. 183)”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의 자기고양 편향은 자신을 보통사람들보다 더 낮다(better-than-average)고 보는 경향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자신을 일반적인 타인들보다 긍정적 속성에서는 높게 평가하는 반면, 부정적 속성에서는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논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거의 모든 속성상에서 스스로가 평균을 넘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성을 편향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극히 부적으로 치우친 분포를 갖는 모집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평균이상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Alicke, Klotz, Breitenacher, Yurak, & Vredenburg 1995).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이 이런 경향성을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편향(bias) 혹은 착각(illusion)으로 간주하고 있다(John & Robin, 1994; Taylor & Brown, 1988).

자기고양 편향에 대한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실제보

다 높게 평가하는 크기를 편향의 크기로 정의하는 것이다(예 : John & Robin, 1994). Taylor와 Brown(1988)은 자기고양 편향을 “사람들이 자신을 남들이 보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보는 것(p. 195-196)”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주로 성격심리 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의이다. 즉 어떤 속성에 대한 자기평가와 자신의 실제값을 비교하여 실제값보다 자신을 더 호의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자기고양 편향으로 정의하는 것이다(이 경우를 본 연구에서는 ‘자애적 편향’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정의를 사용하는데 있어 최대의 문제점은 “실제값”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있다. 평가에서 “실제”를 알 수 있으면, 그것이 준거가 되어 평가의 정확성(accuracy) 문제는 평가와 준거 사이의 일치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Kruglanski, 1989). 그러므로 모든 판단의 정확성을 다루는 연구에서 판단을 무엇과 비교하느냐 하는 준거설정이 문제가 된다. 성격과 같은 심리적 속성의 평가에 대한 객관적 준거를 찾는 쉽지 않다. 만약 평가자들이 표적의 ‘성실성’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어떤 준거로 확인할 수 있는가?

일부 연구자(예 : Jones, 1985)는 대인지각(판단)의 경우, 적절한 준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의 정확도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의 정확성을 다루는 많은 연구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정치들을 준거로 사용하고 있다. 첫째, 자기보고이다. 이는 성격평가와 같은 연구에서 준거를 구하기 위해 표적에게 자신이 특정 특질(예 : 외향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지를 직접 묻는 것이다. 이는 자신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일부 반론이 있으나(예 : Bem, 1972), 실제로 대인지각의 정확도를 다룬 많은 연구들은 자기보고를 준거로 사용하고 있다(예 : Kenny & Winkquist, 2001). 둘째, 전문가의 판단이다. 전문가란 표적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되는 표적의 친한 친구, 부모, 담당의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학교장면이나 발달연구에서는 종종 표적학생들을 잘 안다고 생각되는 교사의 그 학생에 대한 판단(예 : 공격성 판단)이 준거로 사용된다(예 : Malloy & Yaras, 1996). 셋째, 여러 사람이 내린 판단의 평균(mean judgment)이다. Kenny(1987)는 성격지각에서 ‘준거’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인간관찰자로 보고

표적의 가능한 모든 행동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보고 내리는 평균판단을 준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다. 때로 기존의 여러 증거들을 근거 판단의 조작적 기준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임상경험 증거들에 의해 표적대상의 ‘망상증환자일 가능성’에 대한 준거로서 MMPI의 L점수를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행동관찰이다. 평가자가 아닌 제 3의 관찰자가 직접 표적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다정함’의 평가 준거로서 사전에 정해진 ‘다정한 행동(예 : 미소 짓는 것)’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러 준거 중 Kenny(1994)는 어떤 속성에 대한 특정한 실제 평가치는 “다수의 타인들이 그에 대해 평가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어떤 성격 속성에 대해 평가자 자신이 자신을 평가한 값이 다수의 타인들이 그를 평가한 값과 비교하여 호의적인 경우를 이를 자기 고양편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자기고양 편향에 대한 두 가지 정의가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자기고양 편향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두 자기고양 편향지표 간에는 높은 상관(예 : $r=.58$)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Kwan, John, Kenny, & Bond, 인쇄중)에 두 자기고양 편향 지표간의 명확한 구분이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까지도 많은 사회심리학 연구들에서는 대개 자기고양 편향을 위의 두 개념 중 사회비교 편향으로 해석하였다(Suls, Lemos, & Stewart, 2002).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처럼 사회비교 편향을 자기고양 편향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모순점이 발견된다. 다음의 그림 1을 참조하여 보면, A는 실제값이 80점, 자기평가값이 70점이고, A는 타인들은 대체로 50정도인 사람으로 평가하였다고 보자. B는 실제값이 20점, 자기평가값이 30점, B도 역시 타인들은 대체로 50정도인 사람으로 평가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사회비교 기준에 의하면 A는 자기고양자인 반면, 자애적 기준에 의하면 A는 자기겸양자이다. 한편 B는 사회비교 기준에 의하면 자기겸양자이고 자애적 기준에 의하면 자기고양자이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구분이 역전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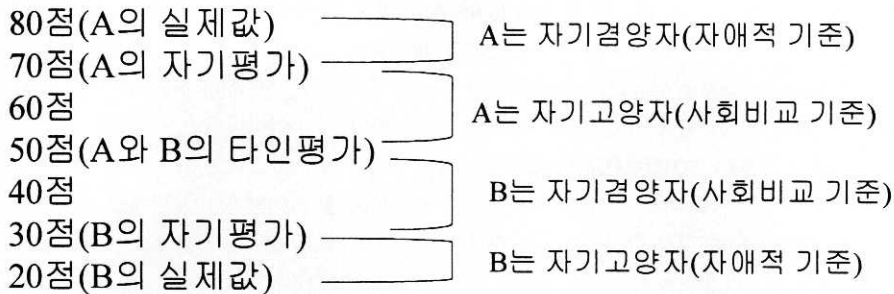


그림 1. A와 B의 실제평가,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에 따른 자기고양과 자기겸양 예

연구문제

기존 연구들(예 : Brown, 1986)에서는 위의 두 경우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고양 편향과 자존감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고양 편향을 사회비교 편향과 자애적 편향지표로 구분하여 그것의 크기와 자존감간의 관계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enny(1994)의 제안에 따라 어떤 속성에 대한 특정인의 실제 평가치는 그를 잘 알고 있는 다수의 타인들의 그에 대해 평가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속성(예 : 친절함)에 대해 평가자 자신이 자신을 평가한 값이 다수의 타인들이 그를 평가한 값보다 유의적인 경우를 (자애적) 자기고양자로 볼 수 있다.

즉 자기고양 편향은 자신을 실제(즉 타인들의 평가치)와 다르게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타인이 지각하는 값보다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종의 착각값(+착각값)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 측면(예 : 성실성)에서 자기평가값 중 실제값(true score)을 제외한 오차(error)가 +값인 경우가 자기고양 편향이며 -값인 경우가 자기겸양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고양과 자기겸양 중 어떤 편향을 보이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최근 자기고양 편향을 다룬 연구들이 서양인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최진희, 구민경, 및 최인철(2002)의 연구에서는 이것을 한국인 부모에게 반복함으로써 문화적 보편성 혹은 문화적 특수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체로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하면, 서양인과 비교하면 동양인에게는 자기고양 편향이 나타나지 않거나 약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동양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

하여 더 독특하고 더 뛰어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름이 없는 평균적인 존재이고, 어떤 특성들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자기겸양적(self-abasement)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즉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들은 집합주의 문화(Hofstede, 1991)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더 중히 여기고 이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자기겸양적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Heine & Lehman, 1997 참조).

둘째, 어떤 성격 영역에서 편향이 크게 나타나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자기고양이 모든 평가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긍정적 측면에서 자신이 과거에 비해 더 나아진 것은 없지만 부정적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손현숙, 2003 참조). 또한 Swann과 Pelham(1989)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이나 능력에서 자신이 타인들 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중요하지 않은 속성에서는 자기고양 편향이 나타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사람들이 자기평가에서 개인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이나 능력만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Swann 등(1989)은 차별적 중요성(differential importance)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안하였다. 차별적 중요성 지표는 자기평정과 중요성 평정간의 상관으로 자기견해가 정적이거나 중간인 사람에 비해 부적인 사람의 경우가 자존감에 대한 개인적 중요성이 더 효과와 크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Suls 등(2002)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남에게 명확하게 지각 될 수 있는 분명한 특성

(unambiguous trait)에서 보다는 애매한 특성(ambiguous trait)에서 자기고양 편향현상이 나타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특성보다는 긍정적 특성의 지각에서 자기고양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들의 자기향상 지각에 관한 연구(손현숙, 2003)에서도 고교생들은 애매한 특성에서 자신이 과거(중학생 시절)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지각한 반면, 분명한 특성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과거에 비해 약간 퇴보하였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두 종류의 자기고양 편향 지표 중에서 어느 것이 자존감과 더 관련성이 높은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법 및 절차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남 마산시에 소재한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 200명이었다. 이들은 1학년 2개 반에서 40명, 2학년 4개 반에서 80명, 3학년 4개 반에서 80명이었으며, 같은 반 학생 중에서 무작위 선발된 4명을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한 총 50집단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자존감 척도, 자기평가를 위한 척도, 같은 집단에 속한 3명의 타인들 각각에 대한 평가척도 등으로 총 5장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존감 척도

자존감 측정을 위해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Rosenberg(197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존감 척도는 Rosenberg의 척도를 박미영(1999)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래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는 4점 척도이었으나, 변별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박미영이 7점 척도로 바꾼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α)는 .89로 나타났다. 이 척도는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나 자신이 만족스럽다' 등과 같이 정적인 방향으로 묻는 질문 5개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내가 실패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등과 같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묻는 질문 5개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

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부정 방향의 문항들은 역산하여 10문항의 평균치를 자존감의 측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를 위한 척도

자기평가를 위한 문항은 모두 10문항으로 1장의 질문지로 제작되었고, 자기 및 타인평가를 위한 질문지는 5요인 모델(Five Factor Model)을 측정하는 검사인 Big-Five 성격심리 검사(유태용, 김명언, 이도형, 1997)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들이 각 차원에서 2문항씩 모두 10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평가를 위한 평정에서는 외향성(나는 사교적이다, 나는 활발하고 적극적이다), 정서안정성(나는 성격이 차분하다, 나는 흥분을 잘한다), 호감성(나는 마음이 너그럽다, 나는 친구들에게 인가가 많다), 성실성(나는 부지런하다, 나는 착실하다), 교양성(나는 똑똑하다, 나는 교양이 풍부하다)에 대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의 7점 척도 상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차원을 측정하는 두 문항간의 상관계수는 교양성 차원(.66)~외향성 차원(.98)로서 높았기 때문에 두 문항의 평균점수를 각 차원점수로 하였다. 자기평가를 위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α)는 .72이었다.

타인평가는 자기평가를 위한 문항과 동일한 문항들을 이용하여 집단성원 3인 각각을 평가할 수 있도록 3장의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즉 각 장에서 타인 1, 타인 2, 및 타인 3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A의 타인평가에서 외향성의 경우 'B는 사교적이다', 정서안정성의 경우 'C는 흥분을 잘한다' 등의 문항에 역시 7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타인평가를 위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α)는 .67이었다.

연구 절차

무작위로 선정된 4명의 집단성원은 모두 같은 학급의 급우로서 평소 서로를 잘 아는 학생들이었다. 같은 집단에 배정된 4명의 연구참가자들이 실험실에 도착하면 이들을 실험실 중앙에 책상 4개를 이용하여 서로 마주 보게 배열하고 동서남북 각 방향에 1명씩 마주보게 앉혔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으면 미리 준비한 A, B, C, D

4개의 명찰 중 각자 1개씩 패용하도록 하였다.

끝이어서 연구참가자들에게 자존감 측정 설문지, 자기 평가서, 3장의 타인평가서 등 총 5장으로 된 설문지 묶음을 1부씩 배부하고 이어 설문조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 요령을 설명하였다. 이들의 모든 반응에 대해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제시되는 질문들을 주의 깊게 읽고 답하도록 당부하였다.

설문지 작성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답을 제시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게 하였으며 집단 명을 설문지 맨 위에 적게 하였다. 그 다음 작성자 명은 작성자나 평가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작성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기 위하여 실명으로 표기하지 않고 각자에게 배정된 기호 A, B, C, D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설문지 묶음의 순서대로 자존감, 자기평가, 타인평가 1, 타인평가 2, 타인평가 3의 순으로 설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타인평가 설문지는 자신을 제외한 집단성원 3인에 대해 각각 평가하도록 하였다. 즉 자신 및 타인평가는 라운드 로빈(round robin) 방식으로 하였다(표 1참조).

표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라운드 로빈 방식의 자기 및 타인평가

평가자	표 적 대 상			
	A	B	C	D
A	자기 평가	타인1 평가	타인2 평가	타인3 평가
B	타인1 평가	자기 평가	타인2 평가	타인3 평가
C	타인1 평가	타인2 평가	자기 평가	타인3 평가
D	타인1 평가	타인2 평가	타인3 평가	자기 평가

표 1에서 보듯, 평가의 순서는 모든 연구참여자간 먼저 자기평가 설문지에 평가를 한 후, 다른 집단성원을 차례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집단성원 A는 자기평가 후, 먼저 타인평가 설문지에 B를 평가하고, 그 다음 C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D를 평가하였다. 집단성원 B는 첫 번째 타인평가 설문지에 A를 평가하고, 그 다음으로 C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D를 평가하도록 하였다¹⁾. 평가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대략 30분-40분 정도 소요되었다.

1) 4인 집단에서 평가자 A~D의 기호배정이 무선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집단내에서 타인평가의 순서를 상쇄시키는 절차를 사용하지 않았다.

결 과

4명으로 구성된 집단성원들의 특정 평정치(예 : 외향성)는 크게 3가지로 채점하였다. 먼저 자기평가 점수는 피험자들이 자신을 각 차원에서 평정한 문항들의 평균 값이다. 예를 들어 A가 A에 대해 평정한 값이다. 타인평가 점수는 특정 피험자(예 : A)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성원들(예 : B, C, D)을 평가한 점수들의 평균이다. 예를 들어 A가 B의 외향성을 3, C의 외향성을 4, D의 외향성을 5로 평가한 경우, A의 외향성 타인평가 점수는 이것들의 평균인 4가 되는 것이다.

특정인(예 : A)의 실제평가 점수는 같은 집단에서 그를 제외한 타인들(예 : B, C, D)이 그(A)를 평가한 점수의 평균이다. 예를 들어 B가 A의 외향성을 2, C가 A의 외향성을 3, D가 A의 외향성을 4로 평가한 경우, A의 실제 평가 점수는 3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방법으로 5 요인에 대해 피험자의 자기평가, 타인평가 및 실제 평가 점수를 산출하였다.

두 기준에 따른 자기고양자와 자기겸양자의 비율

연구참여자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전체적인 평가에서 자기고양 편향을 보여주는지 혹은 자기겸양을 보여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편향지표에 근거한 자기고양자와 자기겸양자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5영역의 평균 자기평가, 평균 타인평가, 및 평균 실제평가를 근거로 자애적 기준에서는 자기평가 점수와 실제평가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여 자기평가 점수가 실제평가 점수보다 높은 자기고양자와 자기평가 점수가 실제평가 점수보다 낮은 자기겸양자로 구분하였다. 사회비교 기준에서는 자기평가 점수와 타인평가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여 자기평가 점수가 타인평가 점수보다 높은 자기고양자와 자기평가 점수가 타인평가 점수보다 낮은 자기겸양자로 구분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두 기준에 따라 엇갈리는 분류가 전체의 27.56%이었고, 나머지 72.44%는 동일한 범주로 분류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아도 두 편향 지표 모두의 자기고양자 비율(18.88%)보다 두 편향 지표 모두의 자기겸양자 비율(53.57%)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chi^2(1)=32.56, p<.001$.

표 2. 두 기준에 따른 자기고양자와 자기겸양자의 수(%)

자애적 기준	사회비교 기준	
	자기고양자	자기겸양자
자기고양자	37(18.88%)	25(12.76%)
자기겸양자	29(14.80%)	105(53.57%)

총 200명 중 4명은 자기평가와 타인평가가 동일하게 나타난 사람으로서 어느 부류에도 해당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자기고양 편향 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고양 편향자보다는 자기겸양 편향자가 월등히 많다는 것은 자기고양 편향보다는 자기겸양이 우세함을 시사한다.

영역별 자애적 편향

다음의 표 3은 5개의 성격 영역별 자애적 기준에 따른 자기고양자 및 자기겸양자의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표 3. 차원별 자애적 기준에 따른 자기고양자와 자기겸양자의 수(%)

	외향성	정서안정성	호감성	성실성	교양성
자기고양자	108(56.84)	61(31.77)	81(43.09)	61(31.44)	65(33.51)
자기겸양자	82(43.16)	131(68.23)	107(56.91)	133(68.57)	129(66.49)
$\chi^2(1)$	3.56	25.52	3.60	26.72	21.11
p	.059	.001	.058	.001	.001

표 3에서 보듯 외향성의 경우 자기고양자의 비율(56.84%)이 자기겸양자의 비율(43.16%)보다 경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chi^2(1)=3.56$, $p<.06$. 이는 외향성의 경우 어느 정도 자기고양 편향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성격 차원들에서는 자기겸양자의 비율이 각각 정서안정성(68.23%), 성실성(68.56%), 교양성(66.49%), 호감성(56.91%) 순서로 자기고양자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외향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성격 요인(정서안정성, 호감성, 성실성, 교양성) 모두에서 자신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평가와 실제평가 간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 자애적 편향 지표라고 부르는 것으로써, 이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전체

적으로 자기고양이 아닌 자기겸양 편향을 보여주었다.

영역별 사회비교 편향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자기고양 편향의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자기평가 대 타인평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5개 성격요인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예 : A의 A평가)와 타인평가 점수(예 : A의 B, C, D에 대한 평가 평균)의 평균을 비교하여 자기평가가 타인평가보다 높은 자기고양자와 자기평가가 타인평가보다 낮은 자기겸양자의 비율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표 4에 나와 있다.

표 4. 차원별 사회비교 기준에 따른 자기고양자와 자기겸양자의 수(%)

	외향성	정서안정성	호감성	성실성	교양성
자기고양자	107(55.15)	56(29.79)	76(40.43)	70(36.46)	64(34.59)
자기겸양자	87(44.85)	132(70.21)	112(59.57)	122(63.54)	121(65.41)
$\chi^2(1)$	2.06	30.72	6.89	14.08	17.56
p	.151	.001	.001	.001	.001

외향성의 경우 자기고양자의 비율(55.15%)과 자기겸양자의 비율(44.85%)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i^2(1)=2.06$, ns . 즉 외향성의 경우 자기고양 편향도 자기겸양 편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서안정성(70.21%), 호감성(59.57%), 성실성(63.54%), 교양성(65.41%)의 경우는 자기겸양자의 비율이 자기고양자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에서 보듯 역시 외향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성격 요인(정서안정성, 호감성, 성실성, 교양성) 모두에서 자신을 타인보다 높게 평가한 사람의 비율이 낮았다. 즉 위에서 살펴본 자애적 지표에 따른 분류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고양자는 자기겸양자의 비율이 낮았다.

다음으로 두 지표에 따른 자기고양 편향간 상관인 .438(외향성)~.657(성실성)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두 편향 지표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5영역별 자기고양 편향의 크기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5성격 영역별 자기고양 크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4, 199)=18.59$, $p<.01$, 이를 사후검증(Tukey 검증)한 결과가 그림 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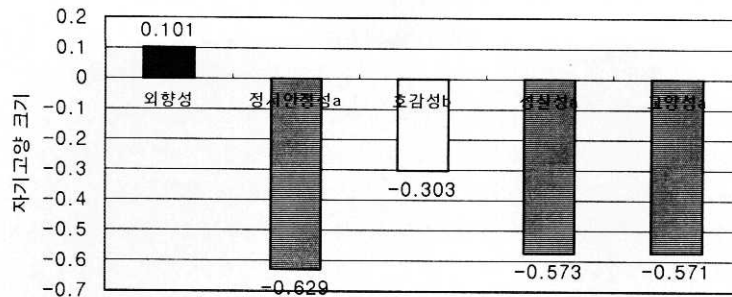


그림 2. 5개의 성격 영역에 따른 자기고양 편향의 크기

첨자 a, b, c는 사후검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수치들이다. 즉 가장 큰 항목이 a, 그 다음이 b, c의 순서이다. $p < .05$.

그림 2에서 보듯 정서안정성, 성실성, 및 교양성 차원이 자기겸양 편향이 가장 큰 것들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호감성 차원이었다, $p < .05$. 그러나 예외적으로 외향성 차원에서는 어떤 편향도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t(199)=1.10$, ns .

자기고양 편향과 자기평가와 자존감간의 관계

피험자들을 5영역의 평균 자기고양 기준을 근거로 자기고양자와 자기겸양자로 구분한 다음, 집단간 자존감 크기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애적 기준에 따른 자기고양자는 자신을 실제평가보다 높게 평가한 사람이며, 자기겸양자는 자신을 실제평가보다 낮게 평가한 사람이다. 사회비교 기준에 따른 자기고양자는 자신을 타인평가보다 높게 평가한 사람이고, 자기겸양자는 자신을 타인평가

가보다 낮게 평가한 사람이다. 각 유형별 자존감의 크기의 평균이 다음의 표 5에 나와 있다.

두 분류기준에 따른 자기고양자와 자기겸양자간의 자존감 분석에서 자애적 기준에 의한 집단간 자존감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192)=2.46$, $p=.12$. 즉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 자기고양자($M=5.10$)와 자신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 자기겸양자($M=4.81$)간에는 자존감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비교 기준에 따른 자존감의 주 효과는 유의하였다, $F(1, 192)=14.40$, $p<.01$. 이는 피험자가 자신을 타인들보다 높게 평가한 자기고양자($M=5.31$)가 자신을 타인보다 낮게 평가한 자기겸양자($M=4.61$)보다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192)=0.82$, $p=.37$. 위의 결과로 볼 때,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느냐의 여부보다는 자신을 타인보다 높게 평가하느냐의 여부가 자존감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5가지 성격 차원 각각에서 두 자기고양 편향크기와 자존감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두 자기고

표 5. 두 자기고양 기준별 자기고양자와 겸양자의 자존감 크기 (표준편차)

	사회비교 기준		전체
	자기고양	자기겸양	
자애적 기준			
자기고양자	5.37(0.91) $n=37$	4.84(0.98) $n=25$	5.10(0.97) $n=62$
자기겸양자	5.25(1.02) $n=29$	4.38(1.22) $n=105$	4.81(1.23) $n=134$
전체	5.31(0.95) $n=66$	4.61(1.19) $n=130$	

자존감 수치는 7점 만점으로 수치가 클수록, 자존감이 큰 것임.

표 6. 5성격 차원에서 두 자기고양 편향과 자존감간의 관계(수치는 β 임)

	외향성	정서안정성	호감성	성실성	교양성
자애적 편향	.220*	.032	.205*	.113	.241*
사회비교 편향	.170*	.083	.193*	.214*	.192*
R^2	33.2%	0.5%	13.1%	7.7%	13.3%

* $p < .01$

양 편향 지표를 예언 변수로 하고 자존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stepwise 방식)을 하였다. 그 결과의 요약이 표 6이다.

표 6에서 보듯 자애적 편향의 경우 자존감과 관련되는 성격차원은 외향성($\beta=.220$), 호감성($\beta=.205$), 및 교양성($\beta=.241$)이었다, $ps<.01$. 즉 위의 3차원에서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할수록 자존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안정성과 성실성에서의 자기고양 편향은 자존감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비교 편향의 경우도 위에서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자애적 편향보다는 자존감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외향성, 호감성과 성실성, 교양성에서는 자기고양 편향이 자존감과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안정성에서는 둘 간에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기고양 편향과 자존감간의 관계는 차원별로 차이가 있었다. 즉 외향성에서의 자기고양 편향이 클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호감성과 교양성에서도 자기고양 편향과 자존감간에 정적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서안정성에서는 자기고양 편향의 크기와 자존감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위의 결과에서 각 차원에서 편향이 자존감을 설명하는 설명변량은 영역별 큰 차이를 보이며 0.5%~33.2% 정도로 예상외로 낮게 나타났다. 자기평가는 실제의 평가와 평가오류(편향)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존감은 편향 이외에도 실제평가에 의해 영향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실제평가와 편향 중 어느 것이 자존감과 더 관련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타인들의 평가값(실제평가)과 두 가지 자기고양 편향값(즉 자기평가와 실제평가의 차이,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차이) 등 3가지를 예언 변인으로 하여 자존감을 예언하는 회귀분석(stepwise 방식)을 하였고 그 결과의 요약이 표 7에 나와 있다.

표 7. 3가지 주요 변인으로 자존감을 예언한 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수	b	β	t	p
실제평가	1.07	.604	7.41	.001
자애적 편향	-0.55	-.121	0.34	.187
사회비교 편향	0.95	.704	6.98	.001

3가지 예언변수가 자존감을 설명하는 총 설명량(R^2)은 35%이었으며, 실제평가와 사회비교 편향이 높을수록 자존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beta=.604$, $p<.01$; $\beta=.740$, $p<.01$. 그러나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정도인 자애적 편향은 자존감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121$, ns . 이 결과는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실제의 자기평가와 오류 모두임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즉 실제와 편향이 모두 자존감과 관련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자애적 편향크기는 자존감과 무관하였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떤 종류의 자기평가 편향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자기고양 편향을 자신을 실제보다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자애적 편향과 자신을 타인들보다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회비교 편향으로 구분하여, 각 성격차원에서의 자기평가 편향과 자존감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셋째, 자기평가를 실제평가와 두 종류의 오류(자기고양 편향)로 구분하여 각 요인과 자존감간의 관련성을 비교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부 피험자의 자기고양 여부는 자애적 기준과 사회비교 기준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참조). 각각 두 기준을 별도로 적용했을 때, 자기고양자와 자기겸양자로 구분이 엇갈린 경우가 약 28%이었다. 그러나 자애적 기준과 사회비교 기준 모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고양자에 비해 자기겸양자의 비율이 높았다²⁾. 즉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강한 자기겸양 편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자기고양 편향보다는 자기겸양 편향이 나타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자기고양 편향의 경우에도 자신을 애매한 타인들과 비교하는 경우와 실제로 존재하는 가시적인 타인들과 비교하는 경우로 구

2) 엄격한 의미에서 의식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자기겸양(self-modesty)으로 볼 수 있으며, 비의식적(동기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자기비하(self-diminishment)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둘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겸양으로 표현하였다.

별할 수 있다. 이때 전자의 경우는 자신의 비교대상이 “평균적인 타인들”이고 이런 경우 대체로 자기고양 편향이 나타난다(예 : Cross, 1977).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실제의 타인(예 : 동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우로서 이런 경우 자기고양 편향이 작거나 자기겸양이 나타난다(예 : Buckingham & Alicke, 2002; Klar, Medding, & Sarel, 1996; Suls et al., 2002).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서로 친숙한 학급친구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고양 편향보다는 자기겸양 편향이 나타났을지 모른다.

둘째,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이 의식적인 인상관리의 방편으로 자신을 실제 혹은 타인들보다 낮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피험자의 과반수 이상(약 54%)이 자신을 타인들과 실제보다도 낮게 평가한 것은 자신이 겸손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한 인상관리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불행히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에서 나타나는 동기적 편향과 인지적 편향을 구별하지 않았다. 또한 자기겸양자의 비율이 높게 나온 이유가 자기평가를 낮춘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타인평가를 높인 긍정성 편향(positivity bias)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사회비교 기준에 따른 자기고양자의 비율이 자애적 기준에 따른 자기고양자의 비율보다 높아야 한다. 그러나 전자의 비율은 33.7%인 반면, 후자는 31.6%로서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또한 사회비교 기준에 따른 자기고양 편향과 자존감간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³⁾

셋째,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 사회가 집합주의 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고양 편향보다는 자기겸양 편향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복미를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적 측면은 회피하고 축소하는 반면, 정적 측면은 확인하고 드러냄으로써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한다(Hofstede, 1991).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집합주의 사회에서는 대인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강조하여 자신의 정적 측면은 덜 드러내고, 부적 측면은 확인하고 수정함으로써 집단의 조화를 증진시키

는 노력을 한다(조금호, 1993). 실제로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고양 편향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예 : John & Robin, 1994), 우리나라의 경우(예 : 홍기원과 고재홍, 2003)나 일본의 경우(예 : 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iki, 1997)에서는 자기고양보다는 자기겸양 편향이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두 번째로 어떤 성격 영역에서 자기평가 편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가지 편향 지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정서안정성, 성실성, 교양성 등에서 자기겸양 편향이 나타난 반면, 외향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자기고양 편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기고양 편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미국 대학생들이 예외적으로 정서안정성 차원에서는 오히려 자기겸양을 보여주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Kenny, 1994).

세 번째는 자애적 편향과 사회비교 편향 요소 중 어느 것이 더 자존감과 관련이 높은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자애적 기준에 따른 자기고양자와 자기겸양자간의 자존감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사회비교 기준에 따른 자기고양자와 자기겸양자간의 자존감 차이는 유의하였다. 즉 자신을 타인들보다 높게 평가한 자기고양자는 자신을 타인보다 낮게 평가한 자기겸양자보다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느냐의 여부보다는 자신을 타인보다 높게 평가하느냐의 여부가 자존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의 5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에서의 자기고양 편향이 자존감과 가장 관련이 높은지를 알아본 결과, 대체로 외향성, 호감성, 교양성에서의 자기고양이 자존감과 정적으로 관련되는 반면, 정서안정성과 성실성에서는 둘간의 관계가 미약했다.

마지막으로 자기평가 중 실제평가치와 자기고양 편향이 자존감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의 크기를 알아 본 결과, 실제 평가치와 자기고양 편향치 중 타인에 대한 평가와 자기평가의 차이값이 자존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자기고양 편향크기는 자존감과 무관하였다. 그러므로 자기고양 편향 중 적어도 자애적(narcissistic) 편향은 그 개인의 자존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3) 자기겸양 편향자가 높게 나타난 원인에 대한 이상의 두 가지 대안적 설명은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제기한 것임을 밝혀 두며, 사의를 표한다.

(Shedler, Mayman, & Manis, 1993 참조). 즉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존감의 본질은 자신이 실제 혹은 이상적 표준보다 더 낮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타인들(정확히 말해 타인들의 평균)보다 더 낮다고 보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소의 꼬리’보다는 ‘닭의 머리’적인 사람의 자존감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자기평가와 자존감간의 관계를 다룬 이전 연구들(예 : Brown, 1986)에서는 실제평가와 자기고양 편향을 구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존감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자기고양 편향과 자존감간의 관계가 과장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신이 타인들보다 더 낮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크기 속에는 “실제로 더 나은” 부분과 “더 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실제평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자신을 실제로보다 높게 평가하는 자기고양 편향크기는 자존감과 높은 상관($r=.35$)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자기고양 편향과 자존감간의 실제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순수한” 편향의 크기(다시 말해 실제평가를 통제 한 후에)가 자존감과 관련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기고양 편향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자기고양 편향이 설명하는 자존감의 설명변량은 예상보다 낮았다. 실제로 자존감은 개인이 처한 사회 문화적인 구조나 신체적 지적 차원 등과 개인의 여러 성격차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Jensen, 1987)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을 본 연구에서는 모두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고양 편향의 효과로서 정신건강의 지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존감의 크기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자기고양 편향은 정신건강의 지표(예 : 자존감이나 안녕감)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실제로 현실상황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narcissistic personality)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감도가 낮고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John & Robin, 1994). 이는 자기고양 편향이 그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자기고양 편향을 또 다른 평가 지표들과 관련하여 대인 관계나 사회적 측면에서 자기고양 편향의 효과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를 타인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타인들에 대한 평가로서 자기고양과 자기겸양을 판단하였다. 특히 자신을 실제로보다 혹은 타인들보다 낮게 평가하는 자기겸양의 경우는 외양적으로만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겸양(modesty)’ 혹은 의례(ritual)’와 실제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자기비하(self-diminishment)’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개인의 자존감과 무관한 일종의 대인관계 책략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자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들을 서로 구분하지 못하였지만, 둘은 일상생활에서 전혀 다른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것을 구분하여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미영 (1999). 자기존중감을 구성하는 요인 : 영역별 우열 및 자기수용과 전반적인 자기존중 감과의 관계.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경 (2002). 시간에 걸친 사람들의 변화평가에서 나타나는 자기고양 편향.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현숙 (2003). 고교생의 주관적 향상지각과 자존감간의 관계. 경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태용, 김명언, 이도형 (1997). 5요인 성격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0(1), 85-102.
- 조금호 (1993).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 대인평가 이원 모형의 확대시론.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7(1), 124-149.
- 최진희, 구민경, 최인철 (2002). 관계 고양 지각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6(3), 53-74.
- 홍기원, 고재홍 (2003, 제출원고). 문제해결 집단에서의 성격지각과 리더십 지각간의 관계.
- Alicke, M. D. (1985). Global self-evaluation as determined by the desirability and controllability of trait adjec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49, 1621-1630.
- Alicke, M. D., Klotz, M. L., Breitenbecher, D. L., & Yurak, T. J. (1995). Personal contact, individuation, and the better-average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804-825.
- Allison, S. T., Messick, D. M., & Goethals, G. R. (1989). On being better but not smarter than others : The Muhammad Ali effect. *Social Cognition*, 7, 275-296.
- Alloy, L. B., & Ahrens, A. H. (1987). Depression and pessimism for the future : Biased use of statistically relevant information in predictions for self versus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366-378.
- Altrochhi, J., Parsons, O. A., & Dickoff, H. (1960). Changes in self-ideal discrepancy in repressors and sensitizer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1, 67-72.
- Bem, D. J. (1972). self-perception theory.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6, pp. 1-62). NY : Academic Press.
- Bradley, G. W. (1978). Self-serving biases in the attribution process : A reexamination of the fact or fiction ques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917-927.
- Brown, J. D. (1986). Evaluations of self and others : Self-enhancement biases in social judgments. *Social Cognition*, 4, 353-376.
- Buckingham, J. T., & Alicke, M. D. (2002). The influence of individual versus aggregate social comparison and the presence of others on self-eval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117-1130.
- Butler, J. M., & Haigh, G. V. (1954). Changes in the relation between self-concepts and Ideal self-concepts consequent upon client-centered counseling. In C. R. Rogers & R. F. Dymond(Eds.), *Psychotherapy and personality change*(pp. 55-75).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mpbell, J. D. (1986). Similarity and uniqueness : The effects of attribute type, relevanc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81-294.
- Codol, J. P. (1975). On the so-called superior conformity of the self-behavior : Twenty experimental investig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 457-501.
- Colvin, C. R., & Block, J. (1994). Do positive illusions foster mental health? An examination of the Taylor and Brown 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6, 3-20.
- Conway, M., & Ross, M. (1984). Getting what you want by revising what you ha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738-748.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San Francisco : Freeman.
- Crary, U. G. (1966). Reactions to incongruent self-experience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30, 246-252.
- Cross, P. (1977). Not can but will college teachers be improved?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17, 1-15.
- Dunning, D., Meyerowitz, J. A., & Holzberg, A. D. (1989). Ambiguity and self-evaluation : The role of idiosyncratic trait definitions in self-serving assessments of 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82-1090.
- Erdelyi, M. H. (1974). A new look at the new look : Perceptual defence and vigilance. *Psychological Review*, 81, 1-25.
- Festinger, L. (1954). Motivation leading to social behavior. In M. R. Jones(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Vol. 2, pp. 191-218). Lincoln, NE : University of Nebraska.
- Greenwald, A. G., & Pratkanis, A. R. (1984). The self. In R. S. Wyer & T. K. Sru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Vol. 3, pp. 129-178). Hillsdale, NJ : Erlbaum.

- Guernsey, B., Jr., & Burton, J. L. (1967). Comparison of typical peer, self, and ideal percepts related to college achievemen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3, 253-259.
- Harackiewicz, J. M., Sansone, C., & Manderlink, G. (1985). Competence, achievement orienta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 A process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 493-508.
- Headey, B., & Wearing, A. (1987). The sense of relative superiority-central to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 497-516.
- Heine, S. J., & Lehman, D. R. (1997).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enhancement : An examination of group-serving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68-1283.
- Hofstede, G. (1991). *Culture and organization : Software of the mind*. London, England : McGraw-Hill.
- Jensen, M. R. (1987). Psychobiological factors predicting the course of breast cancer. *Journal of Personality*, 55, 317-342.
- John, O. P., & Robin, R. W. (1994). Accuracy and bias in self-perception :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and the role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206-219.
- Jones, E. E. (1985). Major developments in social psychology during the past five decades. In G. Lindzey & E. Aronson(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3rd ed., Vol. 1, pp. 47-107). N Y : Random House.
- Kenny, D. A. (1987). Accuracy in interpersonal perception : A social relations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2, 390-402.
- Kenny, D. A. (1994). *Interpersonal perception*. NY : Guilford.
- Kenny, D. A., & Winquist, L. (2001). The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sensitivity : Design, components, and unit of analysis. In J. Hall & F. Bernieri(Eds.), *Interpersonal sensitivity : Theory, measurement, and applications*. NJ : Erlbaum.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 Norasakkuniki,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45-1267.
- Klar, Y., Medding, A., & Sarel, D. (1996). Nonunique vulnerability : Singular versus distributional probabilities and unrealistic optimism in comparative risk judgment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7, 229-245.
- Kruglanski, A. W. (1989). The psychology of being "right" : The problem of accuracy in social perception and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 395-409.
- Kubinić, C. M. (1970). The relative efficacy of various dimensions of the self-concept in predicting academic achievemen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7, 321-336.
- Kuiper, N. A., Olinger, L. J., MacDonald, M. R., & Shaw, B. F. (1985). Self-schema processing of depressed and nondepressed content : The effects of vulnerability on depression. *Social Cognition*, 3, 77-93.
- Kwan, V. S., John, O. P., Kenny, D. A., & Bond, M. H. (in press). Reconceptualiz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bias with the Social Relations Model.
- Larwood, L. (1978). Swine Flu : A field study of self-serving bias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8, 283-289.
- Lewicki, P. (1984). Self schema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77-1190.
- Malloy, T. E., & Yarlas, A. (1996). Interpersonal perception in a social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419-428.
- Messick, D. M., Bloom, S., Boldizar, J. P., & Samuelson, C. D. (1985). Why we are fairer than

- oth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1, 480-500.
- Miller, D. T., & Ross, M. (1975). Self-serving biases in attribution of causality : Fact or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82, 213-22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Y : Basic Books.
- Rosenblatt, R. (1993). The 11th commandment. *Family Circle*, 25, 30-32.
- Ross, M., & Fletcher, G. J. O. (1985). Attribution and social perception. In G. Lindzey & E. Aron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3rd ed., pp. 73-122). Reading, MA : Addison-Wesley.
- Shedler, J., Mayman, M., & Manis, M. (1993). The illusion of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8, 1117-1131.
- Suls, J., Lemos, K., & Stewart, H. L. (2002). Self-esteem, construal, and comparisons with the self, friends, and pe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252-262.
- Swann, W. B., & Pelham, B. W. (1989). From self-conceptions to self-worth : On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72-680.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etlock, P. E., & Levi, A. (1982). Attribution bias : On the inconclusiveness of the cognition-motivation debat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68-88.
- Weinstein, N. D. (1980). Unrealistic optimism about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06-820.

Two Kinds of Self-Evaluation Biases and Self-Esteem

Jaehong Ko and Byong-woo Jeon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nam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wo indices of self-enhancement bias and self-esteem. One of two indices is that compare self perception to other perception. According to this index, self-enhancement bias is the degree that people perceive themselves more positively than they perceive others. Another is that one compare self-perception to the perception by others. From this view self-enhances perceive themselves more positively than they perceived by others. We calculated two indices of self-enhancement bias from round-robin data and examine the relations among these indices and self-esteem. The items for self-evaluation and evaluation for others are composed from Big-Five personality dimensions. The 200 subjects, who are 4 classmates in one group,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and they assessed themselves and others in his group each other.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subjects strongly show that they modestly abased themselves rather than the others in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Second, the tendency to self-abasement is remarkable in all Big Five dimensions except extroversion. Third, the real self-evaluation and the better-than-average bias were moderately related with self-esteem, but the magnitude of the tendency to enhance self more than reality was not related with the self-esteem. It seems suggest that the self-enhancement bias effect reported on many previous researches was overestimated.

Key words : self-enhancement bias, self-esteem, self-perception, other-perception

원고접수 : 2003년 6월 10일
심사통과 : 2003년 7월 27일